

월요광장

들불처럼 번지는 대학가 시국선언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전국 70여 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또한 세상에 대한 걱정이 담긴 선언문을 읽게 된다. 한두 대학도 아니고 몇십 명의 교수도 아니고 수천 명의 교수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예사로운 일인가. 더구나 학교 밖에서는 1466명의 사제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개신교 목사들 또한 집단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지역으로 더 전국에서 모두 참여하고 숫자에 있어서도 과거의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들의 주장은 너무나 옳고 바른 내용이 많을뿐더러 정당당한 그들의 외침은 시대의 압축을 풀어주는 너무도 밝은 내용이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의 모교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는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내용이 가득해서 마음이 참으로 불편하다.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출신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오죽이나 컸다면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의 글을 발표할 수 있었겠는가.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곳은 아닌지 참담하고 끔찍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읽어보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알게 해준다. 이렇게 모교 교수들까지 죄스러움을 느끼게 한 대통령이 라면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함에 대한 심도 깊은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서울대는 527명의 교수들이 동참하여 선언문을 발표했다.

1466명의 사제들 이름으로 발표한 선언문의 내용에는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하지만 공감할 내용이 가득하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쁘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도 모아야 할 것은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

입니다"라고 말하여 거짓, 어둠, 폭력, 분열의 사람이라 전제하고 "자기가 무얼 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로 꼭두각시다. 그러잖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는 모조리 나라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입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수백 명의 서울대 교수연구자들, 천오백여 명에 가까운 사제들이 우리가 떠받들고 살아가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토로했다. 어떤 대학에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 대학에서는 파면한다, 퇴진하라, 자리에서 물러나라 등등 온갖 극단의 말을 동원하여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5년 임기의 대통령직, 이제 절반의 임기를 넘겼는데도 시작할 때부터 아무런 변화 없이 위에서 지적인 잘못만 정지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광화문에서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고, 전국의 곳곳에서 퇴진의 목소리는 높아만 간다. 더구나 뜬금없게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후로는 내란죄의 범죄자라면 서체포해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세상을 깨우는 대로 바뀌고 말았다. 어찌하여 이런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단 말인가. 대전환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국정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던 사람으로서,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다.

社說

'탄핵 무산·담화문'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민회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이 무산된 것인데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반대 투표한 뒤 집단으로 퇴장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8일 오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갖고 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국 상황은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면서 정국 중요한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퇴진에는 동의하면서도 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표로 대표되는 현 내각과 여당이 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야당은 즉각 이른바 '한-한 담화'를 2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권한 없는 위

헌통치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국회의장의 인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국정 공백이 아니라면 당장 내각 총사퇴가 필요한 마당에 한 총리가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 자신의 향후 정치 입지만을 위해 탄핵 불참에 동참한 한 대표에게 국정 운영을 맡겨서는 안된다. 사각장애인인데도 계엄령 발효 당일 국회에 들어가서 위해 월담을 시도하고 윤석열 탄핵안 찬성을 위해 본회의장을 지키는 것인데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야당은 즉각 이른바 '한-한 담화'를 2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권한 없는 위

대통령 내란죄, 검경 수사 특검으로 이어져야

김·경,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지난 6일부터 일제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에 총 15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3000원의 고료는 지금 생각해도 적지 않아서 학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얼마 전 어느 대학교 사회학과 장례식이 있었다. 또 지난 11월 18일에는 발행 예정인 전대신문 1688호를 발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신문, 전대 신문이라고 비껴가겠는가 그 후 독하고 날카로운 칼날에도 견뎌냈던 신문이 빈사 상태라니 안타깝고 서글프다.

수사기관마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일단 법률에 따른 내란죄 수사권은 우선적으로 경찰에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하여 내란죄 수사에 나섰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지휘부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판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칼끝은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無等鼓

일상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적잖이 일어난다. 상상 속 일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이라는 표현을 쓴다. 작금의 국내 상황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에 비견된다. 소설은 있을 법한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보편적인 장르다.

학년이 바뀌고 새롭게 담임을 맡은 교사는 엄석대의 폭압적이고 불의한 행태를 알게 된다. 담임은 순치되고 '부역'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향해 일침을 가한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들의 몫을 뺏기고도 분한 줄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것도 한 학교의 우등생인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게 맛은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권력의 욕망과 실체를 그린다. 한 병태는 부친의 좌천으로 서울에서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간다. 그곳에는 반장인 엄석대가 아이들

'엄석대와 한병태'

에게 군림하며 횡포를 일삼고 있다. 심지어 엄석대는 우등생들에게 시합지의 이름을 바꾸게 함으로써 1등을 독차지한다.

영웅'은 아이들의 세계를 모티브로 불의한 권력의 출현과 붕괴 과정을 그렸다. 소설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현대사의 일면을 담고 있다. 오늘날의 현실 또한 소설 속 교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는 폭력과 불의, 불법을 일삼고 눈감는 엄석대와 한병태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거나.

한병태는 엄석대의 행위가 폭력적이며 불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무리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낀다. 엄석대라는 '권력'의 강고함과 교묘한 속셈, 폭력이 그만큼 견고하다. 한편으로 한병태는 엄석대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권력의 욕망과 실체를 그린다. 한 병태는 부친의 좌천으로 서울에서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간다. 그곳에는 반장인 엄석대가 아이들에게 군림하며 횡포를 일삼고 있다. 심지어 엄석대는 우등생들에게 시합지의 이름을 바꾸게 함으로써 1등을 독차지한다. 한병태는 엄석대의 행위가 폭력적이며 불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무리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낀다. 엄석대라는 '권력'의 강고함과 교묘한 속셈, 폭력이 그만큼 견고하다. 한편으로 한병태는 엄석대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수필의 향기

아! 전대 신문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우체국도 불뛴다. 서로 자기 대학 신문을 다른 대학 친구들에게 발송해주기 바빴고 군에 있는 남자친구, 공장의 노동자들, 고향의 부모님에게도 보내졌다. 전대 신문은 그렇게 용봉 캠퍼스를 떠나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더 많은 대학 신문들이 날개를 달고 용봉캠퍼스로 날아들었다. 그렇게 학교실 앞 우편함에는 시대를 깨우는 전국 대학 신문들이 수북수북 꽂혀 있었다.

아주 간혹, 따뜻한 봄날 잔디밭에 여대생의 엉덩이에 깔려 비명횡사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학생들 책갈피에 가방 속에 끼여 소중히 귀가하였고, 시내버스나 화장실에서도 독자의 손과 손으로 이어지는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학보는 그렇게 뽕뽕 읽어야 하는 필수과목, 이른바 정독 신문이었다.

대학 신문이라고 꼭 딱딱하지만 않았다. 예술 문화 지면은 대학생들의 청춘, 사랑, 방황을 공유하는 낭만 가득한 곳이었다. 나는 신문 맨 뒤쪽면에 지면에 수필을 간혹 실곤 했다. 한 번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신문 기자가 찾아온 적도 있었다. 청탁 날짜를 압박한 것이었다. 그때 부랴 부랴 마감 시간에 쫓겨 썼는데, 신통하게 그 순간은 마치 거미가 공지에서 실을 뽑듯 글을 쓴 적도 아련하다.

그 전대신문 덕분에 개인적 인연도 적지 않았다. 어느 봄날 발신자가 없는 연분홍빛 꽃 편지가 오기도 했다. 서울 어느 대학에 다니는 생면부지의 미대생이었다. 한 번은 예쁜 여대생이 글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은 학과 교수님이 호충해서 찾아가니, 내 글을 붉은 볼펜으로 이곳저곳 교정을 보아놓고 계셨다. 국어학 전공이셨던 송하진 교수님은 어법의 힘을 손수 보여주셨다. 약학대학 박행순 교수님은 내

글을 '영자 신문'에 평론으로 다루주시기도 했다. 전대 신문은 그렇게 내게 많은 인연을 맺어주었다.

제2학생회관 건물에 신문사가 있었는데, 노란 봉투에 고료를 꺼내주던 선생님이 있었다. 그 당시 장당 3000원의 고료는 지금 생각해도 적지 않아서 학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얼마 전 어느 대학교 사회학과 장례식이 있었다. 또 지난 11월 18일에는 발행 예정인 전대신문 1688호를 발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신문, 전대 신문이라고 비껴가겠는가 그 후 독하고 날카로운 칼날에도 견뎌냈던 신문이 빈사 상태라니 안타깝고 서글프다.

여전히 지금 신문, 대학 신문의 힘은 유효한 세상이다. 채상병과 이태원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후 위기, 여성과 노인, 노동자 문제, AI와 빈곤 등 각종 문제에서 신문은 늘 선구적 역할을 다해왔다. 또 전대신문 출신의 기자와 필자들이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나라 중역으로 곳곳에서 활동하며 세상을 이끌고 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빛, 전대신문을 발행하지 못했는데, 그 누구도 광야에 목 놓아 소리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는가. 재정 문제나 여타 문제가 없을까마는 1980년대 눈보라 속에서도 의연했던 전대신문, 그 신문이 부디 다시 힘껏 일떠서서 미치광이 계엄령 따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용봉캠퍼스와 무 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창공을 힘차게 비상하길 바란다.

기 고

우리들의 스쿼트



범은경
소아청소년과 의사

어쩔 것인가. 가장 취약한 것, 가장 아픈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두는 사회. 그런 사회가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이다.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간다. 다만 아직은 내 주변에는 사회안전고리 주변을 벗어나지 않고 사는 희귀한 사람들이 있다. 아니 이제는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의료분야에도 이런 희귀한 사람들이 있었다. 소위 '필수'로 '중증의료'의 길에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날마다 힘든 스쿼트 자세로 살던 동료들.

그런데 어느 날 정치가,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들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던 코어를 부수어버렸다. 수를 몽땅 늘려놓으면 밀려서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낙수와 의사라나. 희귀중 의사의 무게중심 코어는 오직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붕괴되면 중심축을 잃은 오투기 인형처럼 마음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더 이상 스쿼트 자세는 불가능하다.

운동선생은 스쿼트 자세에서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가는 것도 불안정하지만 너무 앞으로 보내면 무릎이 망가져서 더는 스쿼트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스쿼트를 배운 것이 언제인데 그걸 내가 모를 리가 있다. 다만 정확하게 자세를 잡기에는 나를 흔들어대는 손의 힘이 너무 센걸.

이제는 대다수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급감한 것은 어느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여러 명이 사망했던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다. 아기들에게 영양주사를 공급하기 위해 큰 수액병에서 작은 주사기로 분주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아기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검찰이 신생아실 담당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사실 이 불행한 사건의 가장 큰 피고는 국가가 되어야 옳다. 주사액을 옮겨 담는 과정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나누어 담을 필요가 없는 작은 주사기 영양액이 꼭 필요한데 제약사의 입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필수 의약품은 당연히 국가의 지원하에 생산되어야 한다. 자. 구속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항암치료 중에도 일을 놓을 수가 없었던 신생아실 담당 교수인가.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큰 직무유기를 한 국가인가.

며칠 전. 아직도 차마 여러 것들을 향한 마음을 접지 못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 단톡방이 또 다시 소란스러웠다. 정부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에 지불해야 할 돈을 미루겠다는 것. 정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돌중 하나다. 아이들에게 필수예방접종을 놓아주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망하게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백신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망하게나.

오랜 시간 불안해하면서도 무게중심을 뒤로 두고 살았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뉘늦게야 배웠지만 이제는 모진 바람을 피해 스쿼트를 아예 멈춰야 하는 시간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

하체 근력에 관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스쿼트. 최근에 만난 운동선생이 내 스쿼트 자세를 보더니 무게중심을 더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스쿼트 자세에서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무게중심을 지나치게 뒤로 잡았다는 것이다. 사실 스쿼트를 할 때마다 뒤로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다만 익숙해기를 배웠을 뿐 무게중심을 바꿔야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무게중심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모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모 분유회사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의 점과 관련해 무료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회사가 내년부터는 이 코너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아마도 회사경영의 무게중심을 아이들 먹거리 생산에서 성인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확실하게 옮길 생각이었겠지 이런 경영 전략에 따라 분유 마케팅 차원의 양육상담은 그만두는 모양이었다. 무력감이 들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일에서 무게중심을 거두어버렸는데 그들인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